

I776 INSTITUTE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1103호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빌드업코리아 부스 참여

지난 9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빌드업코리아 2025> 컨퍼런스에 1776연구소가 부스를 마련하여 성황리에 운영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미 양국의 보수주의 리더십을 연결하는 자리로, 연구소는 미국의 독립정신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그동안 발간한 보수주의 텍스트들을 보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776연구소 부스를 둘러보는 찰리 커크

대표 인사말

정말 전쟁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견미단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부스로 참여한 빌드업코리아와 거기서 만난 찰리 커크, 그리고 그의 암살. 운동권 판사의 "도망 우려" 망발과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정부의 끊임없는 현금 살포와 국회의 반기업 악법으로 빠르게 폭주하는 베네수엘라행 망국열차.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과 검찰 폐지안 통과.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한 방통위 개칭. 여전히 답 없는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그런 와중에 국회에서 저한테까지 국감 증인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민주당 측이 요청했다는데, 명분이 "극우역사교육과 교육정책 개입"이라네요. 안 그래도 찰리의 암살과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으로 피가 부글부글 끓는 참인데, 민주당이 때를 잘못 골랐습니다.

찰리 커크의 암살범이 쓴 충알에는 "Hey Fascist, Catch!"라고 적혀 있었다지요. 영국과 유럽에서도 국민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깨닫고 들고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부들은 이미 저 멀리 '좌극화'가 되어서 도리어 자유를 외치는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극악무도한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스라엘 마을들을 습격해 유대인 수천명을 죽이고 강간하고 251명을 납치해 갔는데, 도리어 소위 '국제사회'는 자국민을 구출하려는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에게 국가를 주어 보상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문명과 야만'의 전쟁입니다.

커크의 담대한 신앙의 옹호와 그 신념으로 인한 그의 순교는,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태도와 소명에 대해 아주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져 있는 다음세대가 자유의 노를 마음껏 저어 진리의 강줄기를 따라가다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를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19살에 시작한 보수주의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옹호였지만 점차 그 본질인 유대-기독교 가치관 옹호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 첫 데 뷁 무대이자 마지막 무대가 되었던 한국에서도 찰리 커크는 복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청년들에게 던진 메시지도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첫 번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짧은 삶과 죽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너무도 멋지게, 충성히 감당했습니다. 야만적인 폭력으로 그를 잠재운 급진 좌파 세력의 조롱 섞인 총알은 찰리한 사람의 마이크는 떨어뜨렸을지 몰라도, 머지않아 그로 인해 도전받고 깨어나 목소리를 내게 될 수천, 수만 명의 '찰리 커크들'과 그들이 쥐게 될 확성기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찰리 커크 사망 이후 미국 전역에서 MZ세대의 교회 출석률과 성경 구매율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를 위한 찰리 커크의 목소리는 그가 일으킨 수많은 젊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큰 위업과 함성으로 지속될 것이며, 신이 선물하고 인류가 역사를 통해 증명한 자유문명은 커크의 죽음 이후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1776연구소를 방문한 랍맥코이목사님과 스티븐 마틴 목사님

1776연구소도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Fight, Fight, Fight!

조평세 올림

찰리커크 추모식 및 1776라운지 개소예배

22일(월), 1776라운지 개소예배를 드렸다. 10일 암살된 찰리 커크를 추모하며 이날 새벽 거행된 장례예배를 함께 시정한 뒤,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의 인도와 설교로 개소예배를 드렸다. 1776라운지는 회원을 비롯해 보수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이를 위한 독서 및 교류 공간으로, 다양한 보수주의 서적을 비치하였다.



견미단 2기 해단식

20일(토), 견미단 2기 공식 해단식을 가졌다. 단원들은 정동역 사탐방을 통해 1776의 정신을 한국에 전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리틀 이승만'으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정동배재학당 이승만 동상 앞에서

인천 개항/이민사 역사탐방

26일(금), 자유역사포럼 인천 역사탐방이 진행되었다. 개항박물관과 이민사박물관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과 기독교의 영향을 살펴보고, 참가자들 간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 암살된 미국 보수주의 운동가 찰리 커크와 그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 >



전 세계 수많은 젊은 보수주의자들의 아이콘이었던 찰리 커크(Charlie Kirk)가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밸리대 캠퍼스에서 행사 도중 극좌(極左) 저격범에 의해 암살당했다. 3000여 명의 관중 가운데는 그의 아내 에리카와 만 3세, 1세 된 두 아이도 함께 있었다. 1993년생인 커크는 32번째 생일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청년 단체인 '더닝포인트USA'의 설립자이자 대표였다. 그리고 미국 보수 진영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역 중 하나였다. 특히 그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2016년, 2024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October, in the History of Liberty

- 10월 3일 (1863)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는 포고문 발표.
- 10월 3일 (1990) 45년간의 분단 끝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
- 10월 5일 (1964)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의 탈출 사건이 발생, 동독 주민 57명이 장벽 밑을 파고 서베를린으로 탈출.
- 10월 6일 (1973)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 진지를 공격하며 욱카프르 전쟁 발발.
- 10월 7일 (1765) 뉴욕시에서 9개 미 식민지 대표가 모여 영국의 인지세법을 반대하는 인지세 의회(Stamp Act Congress) 개최. 미 독립을 도모하는 '자유 아들들(Sons of Liberty)'라는 조직 결성.
- 10월 7일 (2023)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하마스가 최소 4,300발의 로켓을 이스라엘로 발사하면서 차량과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이스라엘 본토를 침투, 약 6천여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유대인 마을에서 1195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250명을 가자로 납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발발.
- 10월 10일 (1911) 중화민국을 성립시킨 신해혁명이 촉발된 우창봉기일. 대만에서 '쌍십절'로 부르며 국경일로 기념.
- 10월 12일 (1492)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33일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첫 상륙. 거기서 만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름.
- 10월 13일 (1775) 제2차 대륙회의가 함포함대를 승인하며 미 해군이 창설.
- 10월 16일 (1916) 간호사이자 우생론자인 마가렛 생어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미국 최초의 피임 클리닉 개소, 산아제한 또는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낙태 시술 제공 본격화.
- 10월 19일 (1990)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던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개혁 시작.
- 10월 21일 (1805) 영국 해군과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 간의 트라팔가 해전 시작. 벨슨 제독이 치명상을 입고 전사했으나 이 전쟁의 승리로 영국은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 위협을 종식.
- 10월 23일 (1983)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테러범들이 TNT가 실린 트럭을 미군과 프랑스군 본부에 돌진 폭파시켜, 미 해병 24명과 프랑스 낙하산 부대원 58명이 사망.
- 10월 27일 (1787) 미국 헌법 채택을 주장하는 '연방주의자 논고'가 일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에 의해 뉴욕 신문에 출간 시작.
- 10월 31일 (1517) 마르틴 루터가 바텐베르크 성당 문전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며 종교개혁 시작.

10월 연구소 동정

찰리 커크 레거시 데이

미국 정부가 올해 10월 14일을 찰리 커크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 이에 1776 연구소는 그의 삶과 메시지를 기리며 같은 날 찰리 커크 레거시 데이를 진행한다. 간단한 저녁 식사 교제 후 찰리 커크 베스트 영상들을 함께 시청하고 토론, 연구소에서 제작한 찰리커크 기념품을 나누며 찰리 커크의 유산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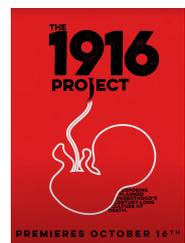
만삭 낙태법 반대 피케팅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점심, 국회 앞에서 태아-여성국민보호연합 낙태 반대 피케팅에 동참한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만삭 낙태 허용(주수 제한 삭제)과 약물 낙태 도입에 반대하며 태아 생명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이다.



<1916프로젝트> 상영회

31일(금), 벤 사피로의 데일리라이어가 제작한 프로 라이프 다큐멘터리 <1916프로젝트>를 1776라운지에서 상영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생학자 마가렛 생어가 어떻게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조장하고 오늘날의 낙태 산업을 일으켰는지 폭로,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상영회 시간은 추후 공지 예정.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 참여

오는 10월 22일(수)과 23일(목), 서울광장과 중구 더플라자호텔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에 참여한다. 전체주의 아래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자유화가 바로 1776연구소는 물론,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최종 사명이며,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임을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자유주의학회 '보수주의와 자유' 발표

29일(수), 한국자유주의학회에서 '보수주의와 자유'를 발표한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상호 연합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광고

<만삭 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 운동>



좌측 QR링크에 접속하여 만삭 낙태 반대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776연구소 후원 안내

3만원 이상 정기 후원 시 1776연구소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781904 (1776연구소)

9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강○은 | 김○우 | 김○희 | 김○영 | 도○현 | 박○희 | 박○인 | 성○슬 | 엄○기 | 이○현 | 이○환 | 이○배 | 정○현 | 주○희 | 한○빈 |
| 강○삭 | 김○준 | 김○은 | 김○은 | 류○영 | 박○석 | 박○준 | 성○준 | 엄○옥 | 이○은 | 이○빈 | 임○원 | 정○민 | 진○민 | 한○영 |
| 강○리 | 김○연 | 김○주 | 김○원 | 류○예 | 박○린 | 방○온 | 소○혜 | 염○영 | 이○빈 | 이○진 | 장○재 | 정○슬 | 차○욱 | 함○라 |
| 권○지 | 김○하 | 김○애 | 김○진 | 마○리 | 박○주 | 배○호 | 손○광 | 오○슬 | 이○한 | 이○혜 | 장○ | 정○한 | 최○선 | 허○은 |
| 권○빈 | 김○규 | 김○실 | 김○일 | 맹○기 | 박○령 | 백○영 | 손○은 | 우○사랑교회 | 이○운 | 이○형 | 전○욱 | 정○아 | 최○영 | 허○선 |
| 권○운 | 김○아 | 김○아 | 김○준 | 문○혁 | 박○배 | 변○연 | 신○현 | 원○슬 | 이○민 | 이○안 | 전○린 | 정○용 | 최○성 | 홍○원코리아 |
| 권○오현 | 김○유 | 김○연 | 나○진 | 민○나 | 박○현 | 변○지 | 신○식 | 유○주 | 이○원 | 이○란 | 전○정 | 조○원 | 최○훈 | 황○민 |
| 김○희 | 김○정 | 김○연 | 나○린 | 민○빈 | 박○혁 | 서○민 | 안○미 | 윤○민 | 이○영 | 이○민 | 정○송 | 조○철 | 추○령 | |
| 김○희 | 김○애 | 김○림 | 노○스더 | 박○민 | 박○주 | 서○경 | 양○호 | 윤○주 | 이○빈 | 이○원 | 정○순 | 조○정 | 하○랑 | |
| | | | | | 박○기 | 서○화 | 양○진 | 윤○화 | 이○조 | 이○은 | 정○교 | 조○호 | 한○은 | |